



Scholars Crossing

Towns Foreign Language Book Collection

Liberty University Bible Resource Center

2006

God Bless You (Korean)

Elmer Towns
Liberty University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liberty.edu/towns_flbc



Part of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Towns, Elmer, "God Bless You (Korean)" (2006). *Towns Foreign Language Book Collection*. 34.
https://digitalcommons.liberty.edu/towns_flbc/34

This Book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Liberty University Bible Resource Center at Scholars Crossing.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Towns Foreign Language Book Collection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Scholars Cross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scholarlycommunications@liberty.edu.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사람이 행복해질 때,
당신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때,
당신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은 물론,
그들과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모두 기쁘게 할 것이다.
축복하는 자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도 축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황금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인생의 승자가 되었을 때 칭찬과 축하를 받기 원하고
좌절했을 때 다시 힘을 내도록 믿어주고 위로해주기 바라는 것이다.
하나같이 누군가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기 바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원칙과 방법을 배워라.

우리 가정이 잘되고 싶은가?
우리 교회가 잘되고 싶은가?
나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혁통하고 싶은가?
축복하라. 축복하는 대로 되는 하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라.
아주 작은 축복이 낳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에 주목하라.
축복을 실천하라! 축복의 권세자가 돼라!

축복하는 삶으로의 인생 대전환을 가져다줄 책.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당신 것이 될 것이다!



GOD BLESS YOU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복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

이 책의 저자 엘머 타운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끌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할 때마다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 역시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돋울 것이다.

저자의 제안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겠다고 결심하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온통 변화시키는 강력한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투하해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을 하는 데에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몇 초가 위로와 격려와 영혼을

고양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당신도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9



ISBN 89-7046-398-4



9 788970 463988

Printed in Korea 값 9,500원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of

GOD BLESS YOU

Copyright © 2003 by Elmer Towns

Published by Regal Books,

A Division of Gospel Light Publications, Inc.,

Ventura, CA 93006, U.S.A.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6 by Kyujang Publish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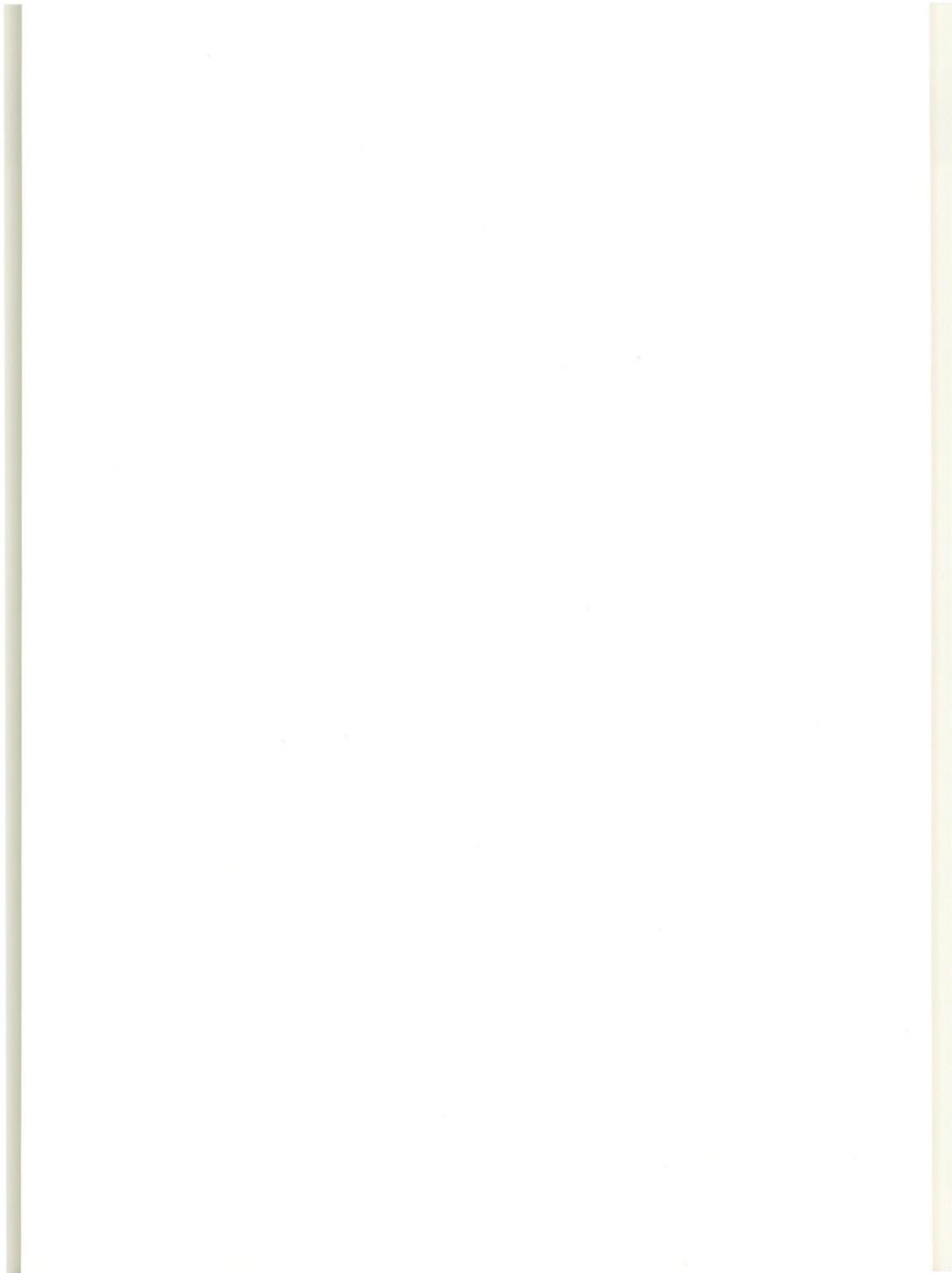
본 저작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Regal출판사와 독점 계약한 규정이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엘머 타운즈 지음 ● 배웅준 옮김

규장



부모에게 헌신하는 그의 행위를 높여 극찬하는 노래입니다.
부모에게 헌신하는 그의 행위를 높여 극찬하는 노래입니다.
부모에게 헌신하는 그의 행위를 높여 극찬하는 노래입니다.

한국어판 편집자의 글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인간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행복인 것 같다.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 여가생활을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추구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칠나적 향락이 아닌가?

하나님 없는 인본적(人本的) 행복이 우리를 해갈시킬 수 있는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들이키면 더 갈증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배제된 인본적 행복 추구는 우리를 더욱 찰나적 향락에 목마른 자들로 만들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수는 우리를 영원히 해갈시킨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은 바로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사탄의 복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적 복의 계획은 수고와 사망의 가시덤불 길이었다(창 3:17-19). 그렇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축복하셨다.

복의 복인 예수님, 축복자 중의 축복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고(마 5:1-12),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마 10:12,13). 사도 바울 또한 교인들을 축복하는 글로 그의 서신들을 시작하였다. 구약의 족장들 역시 그 후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이것이 모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반영하는 성도들의 행동이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과 가족들을 축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우리도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니까 우리도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많기를 사모하는 자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당신 것이 될 것이다(마 10:12,13).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두르고, 당신의 이웃과 동료들을 두르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하나님의 방호벽(防護壁)이 되어줄 것이다.

축복자에게 큰 기쁨이 있으니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다. 이 책을 통해 그 기쁨에 입문하라. 이 책을 통해 축복의 방법을 배우고 익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전승자가 돼라. 당신이 바로 축복의 권세자이다.

규장 편집국장 김용국 목사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한국어판 편집자의 글



1 밀음의 축복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 12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적인 부가가치의 형태로든지 영적 인 부가가치의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그들 안에, 그들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 하고도 풍성하게 그들의 삶에 임하실 것이다.

2 축복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법칙 • 30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처방 을 따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어줄 수 있게 된다.



3 이렇게 축복하라 • 68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궁극 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는 깊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 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차례
CONTENTS

4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104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임재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놀라운 힘을 얻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5 가장 귀한 유산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 138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세울 것이며,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채비를 갖추어줄 것이며, 그들을 견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6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 180

당신이 어떤 크리스천을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당신의 교회의 어떤 크리스천이 당신을 축복할 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축복할 때 서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부록

매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문 | 나를 위한 보호의 축복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축복문 | 행복한 이웃기정을 위한 축복문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적인 부가기초의 형태로든지 영적인 부가 기초의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그들 안에, 그들 위에 입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도 풍성하게 그들의 삶에 입하실 것이다.

1

믿음의 축복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축복의 의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God Bless You)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성경공부를 인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어렸을 때, 어머니는 삼촌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하곤 했다.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고 삼촌은 “주님, 저희가 나누려는 이 음식과 이 음식을 만든 손길에 복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이때 삼촌은 어떤 의미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일까?

구약성경에서 ‘축복’(blessing)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라카’는, 사람들이 왕에게 간청할 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유래했다. 아마 그들은 돈이나 더 높은 지위나 명예나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다른 축복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왕을 높임으로써 왕을 축복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그들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왕이 그들을 축복해주기를 기대했다. 이런 의미에서 비천한 인

간이 “여호와를 송축(축복)하라… 그 성호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bless His holy name)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시 103:1),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무릎을 끓는 것이다(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부가된 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았다” (blessed)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부가가치’ (added value)라는 상업 용어로 함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함축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따르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수한 방법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寶庫)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 28:3-5,12).

이 말씀이 포괄하는 축복의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여, 그 축복이 종종 ‘평화’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샬롬’ (shalom)의 의미에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때 ‘평화’라는 단어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보다 더 폭넓고 풍성한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혹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는 안전하고도 평온한 상태를 허락하신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평화)의 복을 주시리로다”(시 29:11)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와 ‘축복’이라는 두 단어가 종종 함께 등장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한편 신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게오’(eulogeo)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유’(eu)와 ‘말하는 것’(logeo)이란 뜻의 동작 명사가 어우러진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을 위해 “좋은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이다.

말의 중요성

이 깨달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 자체(단어의 사용)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의 말에 권능을 부여하셨으며, 베드로가 합당한 고백을 한 이후에(마 16:13-20)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라고 약속하셨다.

사실 말의 능력에 관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반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혀를 사용하든지 저주하기 위해 사용하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무엇인가가 우리의 말에 배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말’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선언 하실 때에 말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 혹은 은혜의 음성이 메아리친다.

“막대기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당신의 말은 타인을 해할 힘도 있고 치유할 능력도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이 사실을 더욱 민감하게 의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축복의 능력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거나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전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그 종(예수 그리스도)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행 3:26)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 예문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양하세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따라서 나는 성경공부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 외적(外的)인 축복이라는 부가된 가치뿐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하고 완전한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케 하시고, 그들에게 신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더 온전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까닭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좋은 것을 전해달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달라고, 축복을 베풀어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와 은혜와 평화로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삶을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달라고 구하기 위해서다.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이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앉으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6).

예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해 좋은 것을 말하는 분이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며 번영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자녀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자신을 선뜻 내어놓으셨다.

축복의 특성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에 어떤 이적(異蹟)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로 서로를 축복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이적이 나타내는 결과와 전혀 다르다. 얼음과 물이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그 느낌과 실체가 현저히 다르듯이 축복과 이적은 유사하면서도 매우 다르다. 얼음은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물과 전혀 다른 것처럼 이적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그 느낌과 실체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축복보다 더 강하다.

축복과 이적의 차이점

- 신자들의 축복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 신자들의 축복은 하나님나라를 번성케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나라는 훨씬 더 풍성케 된다.
- 어떤 크리스천이 동료 크리스천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삶에 가치가 더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사람의 삶에 더해지는 가치는 가치는 말로 다할 수 없다.
- 신자들이 같은 신자나 불신자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중대된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의 역사(役事)는 훨씬 더 중대된다.

축복의 특성에 관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편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곤경에서 건지시는 것도 분명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 인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주시는 축복과는 조금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서로를 축복 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보다 좀 더 잔잔하고 부드럽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청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연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후텁지근한 어느 여름날,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다가 일사병에 걸렸고, 곧 심장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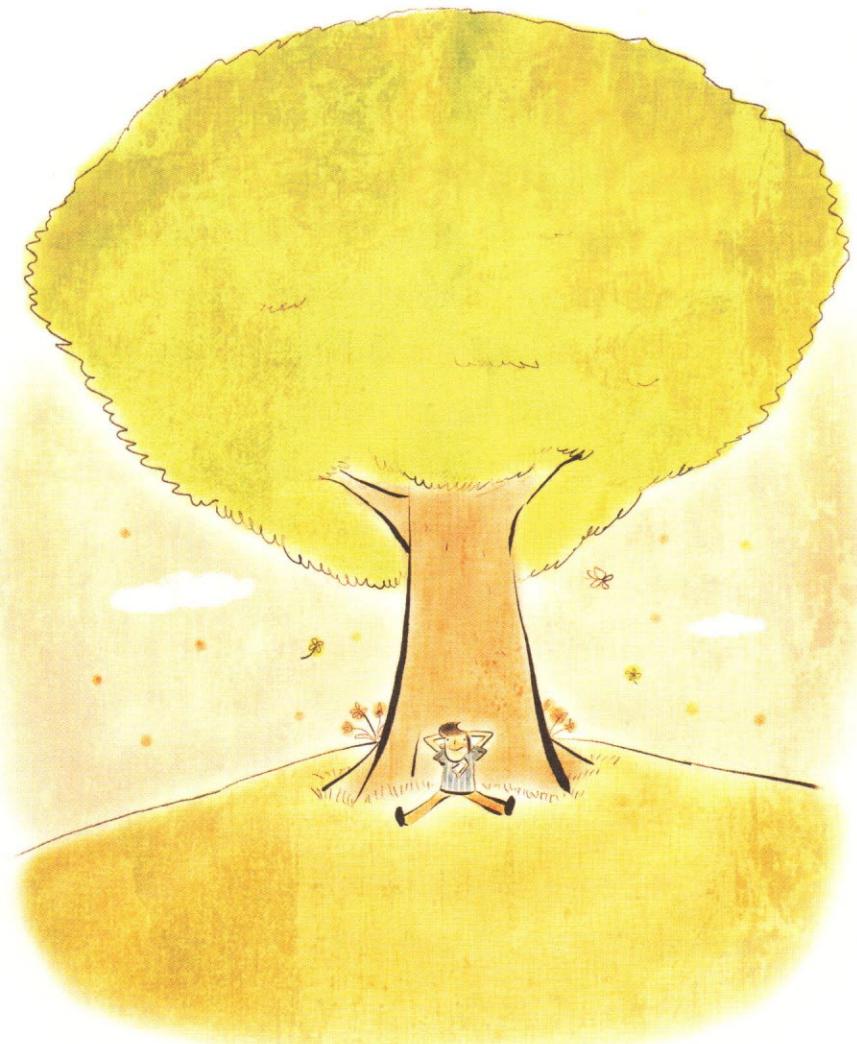
자의 축복이 아니다. 그에게는 치유의 기도와 구급차가 필요하다. 한 편 어떤 골퍼가 우연히 언덕 위에 있는 큰 나무 그늘을 발견한다. 시원한 바람이 한여름의 후끈한 열기를 식혀준다. 35도를 오르내리던 기온도 순간 25도로 뚝 떨어진다. 시원한 미풍이 그의 삶에 가치를 더해준다. 신자들의 축복은 이와 같다.

기아에 시달려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는 신자의 축복이 필요한 것 이 아니다. 그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다. 누군가 그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그는 맛 따위를 음미할 겨를도 없이 게걸스럽게 먹어치운다. 그 음식이 그의 생명을 구한다.

어떤 사람은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다.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결과가 아니다. 그 음식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먹는 시리얼에 신선한 딸기를 썰어 넣어준다. 신자들의 축복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신자들의 축복은 삶에 가치를 더해준다.**

축복은 수혜자의 삶에 자연적(물질적) 가치나 영적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이렇듯 축복으로 더해진 가치를 나는 ‘부가가치’라고 부르겠다. 자연적인 부가가치는 당신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부가 가치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인생이란 매우 복잡한 것이므로 종종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서로 겹치기도 한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나는 매일 아침 아내를 자연적으로 축복하



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나는 잠에서 깨면(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 침대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런 다음 커피를 끓이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넣고 가스 불에 얹은 다음, 현관으로 나가 신문을 가져다 커피를 마시며 표제어를 훑어본다. 그리고 잠시 후, 하나님을 만나러(경전의 시간을 가지려) 서재로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더 타서(크림을 한 스푼 넣어) 아직 자고 있는 아내에게 간다. 잠이 덜깬 아내에게 입을 맞추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커피를 건넨다. 나는 아내의 하루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내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를 바란다. 이로써 나는 아내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나 역시 거기서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삶에 영적인 가치를 더한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축복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종종 부른다. 이 찬양의 가사는 누군가의 삶을 더 행복하고 안락하고 번창하게 만들기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찬양은 신자들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자연적(물질적) 부가가치와 관계가 있다. 만일 당신이 영적인 축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가사로 된 찬양을 부를 것이다.

영적인 축복이란 무엇인가?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축복일 것이다. 우리는 많

은 예배에 참석한다. 주일 아침과 저녁,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해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주 가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행 2:17). 혹자는 이런 체험을 ‘부홍’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분위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라 부르겠다. 우리는 무더운 여름 날 분수에서 흘어지는 시원한 농무(濃霧)처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있다.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축복한다는 것은(그들의 삶 속에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처럼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기운을 차리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당신은 그들이 생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도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조명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는다(부록 어휘사전의 ‘임재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엡 1:3)라고 말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풀 덮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종종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설교가 입맛에 맞았다는 뜻일까 아니면 큰 교훈을 얻었다는 말일까? 아마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사는 법이나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는 법이나 주님을 섬기는 법을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그런 설교 역시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가치를 더해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어휘사전의 '기도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나 금식, 예배와 같은 의식(儀式)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명백한 행위가 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이런 축복의 행위(어휘사전의 '말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를 따를 필요가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적인 부가 가치의 형태로든지 영적인 부가 가치의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그들 안에, 그들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고도 풍성하게 그들의 삶에 임하실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

1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가치'와 '번영'과 '보호'를 더해달라고, 그들을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1. 하나님께서는 당신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신다.
2. 신자들의 축복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거기에 강력한 이적의 역사를 더하실 수 있다.
3.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할 수 있다.
4.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모든 영적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의미이다.

축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2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도 안
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레소서 1장 3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28절

그(하나님)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창세기 49장 25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
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령기 5장 16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청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풀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어줄 수 있게 된다.



축복의 두 측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3년이 넘도록 집에서만 지내는 병든 노인에게 말했다. 그 목회자는 시편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목회자는 본문을 다 읽고 난 뒤, “이 다음 말씀부터 읽으십시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목회자가 성경을 덮자 노인은 쇠약한 손으로 성경을 끌어다가 가슴에 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노인은 비밀을 간직한 어린아이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고, 목회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성경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런 다음 노인은 목회자가 문 밖으로 사라지기도 전에 빼만 양상한 손가락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뒤져 목회자가 읽었던 시편의 다음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20달러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 있었다.

그 목회자는 별씨 몇 해 전부터 그 노인을 심방하여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때마다 20달러짜리 지폐를 남기고 갔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

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교인을 축복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목회자가 떠날 때마다 노인은 지폐가 꽂혀 있을 곳을 부지런히 찾았고, 그럴 때마다 지폐는 노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신선하고 뜨거운 햄버거와 도넛 등)을 즐기는 데 그 돈을 썼다. 목회자는 그 돈이 한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성도에게 작은 행복을 안겨다준다는 것을 알고 크게 만족했다. 그 목회자는 노인이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느 날 노인을 심방하고 나온 목회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앉아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목회자가 노인의 집을 떠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근처에 살고 있는 노인의 손자가 자전거를 타고 급히 달려와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골목 어귀에 있는 식당으로 쏟살같이 달려가 햄버거를 사 가지고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목회자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돈은 자연적(물질적) 축복의 한 예이다. 목회자가 노인에게 말씀을 읊어주는 것은 영적 축복의 한 예이다.

사실, 나는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장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은 큰 교회이지

만 교인들이 무척 많아 때로는 나도 보조적인 목회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경공부 반의 회원 몇 사람이 가끔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나는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사업체의 개업식에 참석했다. 물론 그 것은 크리스천들이 소유했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장년 성경공부 반의 한 회원이 사업체를 새로 열거나 확장할 때마다 나를 초대하여 축복해달라고 청한다. 건물이나 시설비로 수만 달러의 거금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부록 어회사전의 ‘동의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얼마 전에 성경공부 반의 회원 한 사람이 도넛 가게를 개업했을 때에도 나는 사업을 축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성경공부 시간에도 종종 도넛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가 도넛 가게를 개업하고 나를 초청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가게에는 리본 대신 도넛을 연결한 긴 줄이 치렁치렁 매달려 있었다. 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고, 함께 초대받은 지역 유지들과 함께 도넛을 연결한 테이프를 커팅했다.

카센터 개업식에 초대받았을 때에도 그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더불어 그 사람이 고장 난 차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고장 난 영혼도 수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중에서도 어느 미용실 개업식에서 했던 축복기도가 가장 기억에



노년을 축복하는 기도 예문

가난과 질병과 고독의 삼중고로 말년이 피폐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쇠약해진 기력으로 자기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친절과 인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도전하기를 즐기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하소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성취한 일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의 연륜만큼 폭넓게 인생을 바라보며 사고하게 하소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남는다. 성경공부 반의 어떤 여성 회원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외동딸에게 수천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일전에도 그녀는 자기 꿈이 자신의 미용실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그녀가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으니 그날 꼭 와서 축복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겨준 돈과 대출받은 돈을 합쳐서 아주 작은 미용실을 개업했다. 나는 그녀의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녀가 친절과 호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여성들과 새로 결혼하는 신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 그리고 딱 10년 만에 그녀는 우리가 살고 있던 버지니아의 린츠버그에서 가장 큰 미용실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을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어휘사전의 ‘봉헌(개업)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언제나 두 측면을 갖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달라고, 그들이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들을 축복하는 한 가지 측면,

곧 ‘자연적(물질적) 축복’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삶 위에,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루 임재해주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들의 축복의 또 다른 한 측면, 곧 ‘영적 축복’이다.

그리므로 우리는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자연적, 영적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하여 5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 이제 그 5가지 법칙의 면면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5가지 법칙

- 제1법칙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 제2법칙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 제3법칙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
- 제4법칙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
- 제5법칙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향상된 삶을 체험한다.

제1법칙 :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모든 돈을 그려안고 하늘에 앉아 있는 이기적인 구두 쇠쯤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까다로운 규칙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돈’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재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를 바라는 부자와 같다. 다음과 같은 면들을 주목하기 바란다.

물질적 축복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봇지 아니하나 보라”(말 3:10)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구가 강한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왜곡한다. 사람들은 십일조를 복권처럼 생각한다. 하나님께 돈을 바치고 나서 운이 좋으면 몇 배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구

절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물질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하신다는 의미이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돈'이라는 형태로 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 부족한 그때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로 올 수 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정글 오지에는 사치품이 전혀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선교사들이 있다. 그들은 에어컨도 식료품점도 잘 포장된 도로도 자동차를 수리할 변변한 공구도 세탁기도 아이스크림도 도넛도 없는 고립된 세상에서 맨손과 맨발로 일한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십일조를 드리고 현금을 바친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원주민들의 구어체 언어를 문어체로 바꾸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다. 그들은 물질적인 위로를 받았을 때보다 원주민들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또박또박 읽는 소리를 들을 때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고 희열을 느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窓)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 가는 일, 아이들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가는 일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면 아이들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로 답하면서 당신을 즐겁게 해준다.

이처럼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신다. 때로는 그 부가가치가 ‘돈’의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라는 말씀처럼 내적인 만족과 평안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에 못을 박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세상을 기뻐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여기서 ‘생육하라’(be fruitful)는 말씀은 자녀를 낳으라는 의미뿐 아니라 땅을 일구고 가꾸어 그 토지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소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은 ‘건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시거나 우리가 먹는 음식을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봉사하고 더 왕성한 에너지로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신체적 강인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 예문

부모님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소서.
맑은 영혼과 정신을 허락하시어 긴 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소서.
자식의 자식을 보도록 장수하게 하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주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는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육신의 건강을 돌보아주소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소서.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물질로써 봉양하여 효를 다하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소서.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며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소서.

부모님을 축복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말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아버지(어머니)는 주님이 주신 제 생애 최고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어머니(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신 것만으로도 제겐 축복입니다.
아버지(어머니)는 제 평생의 스승이십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세요.
언제나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상기시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마 5:45).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잘 되는 것과 관련하여 신명기 28장 1-14절에서 주목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신체적,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장수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요절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장수하게 된다는 의미의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은 장수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 결국 장수할 것이다. 다음 축복을 주목하기 바란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시 128:5,6).

행복한 표정의 축복

인간의 내적 상태는 곁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낙심할 때, 그것이 표정과 행동으로 정확히 표출되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자극을 받고 흥분되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들뜬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13).

당신의 얼굴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당신의 얼굴에 나타난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는 덜어지고, 중압감은 가벼워진다. 당신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엡 1:3) 때문이다.

영적 축복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엡 1:3).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상속자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갈 3:8,9).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런 축복의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다른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생활과 성도의 행복한 교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관계’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 곧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돋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 13:6, 시 118:6 참조)라고 말했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딤후 1:7)라고 선포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을 주신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소망’이라는 축복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갖



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바울의 권고(살 전 4:13)가 무한한 부가가치를 지닌 축복이 되어 다가온다.

영향력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사용하여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 12:2)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다.

제2법칙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젊었든 늙었든, 믿음이 성숙했든 그렇지 않든, 신앙생활에 익숙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당신은 친구를 축복할 수 있다

창세기 14장은 살렘(Salem, 나중에 예루살렘이 될)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일 때)을 축복했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다섯 종족과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두고,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지역을 침입한 적들의 수중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였다. 멜기세덱은 전투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극구 사양했는데도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멜기세덱은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물질적으로 축복했고, 그 다음에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영어성경 KJV와 NIV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를 ‘blessed be God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축복’ 할지로다)라고 옮겼다]라는 말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축복했다(창 14:19,20).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친구였듯이, 그런데도 서로 축복했듯이 당신도 어려울 때 친구들을 돋고 그들의 물질적인 소유를 보살펴주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위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음식을 주거나 축복의 기도를 하여(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했던 것처럼) 친구들을 축복할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

창세기에는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몇 편 등장한다. 그 이야기 한 편이 신약에도 언급되어 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히 11:20).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아니,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축복해야 한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신체적,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자녀들의 삶에 자연적인 가치를 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의 삶에 영적인 가치를 더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손녀를 축복할 수 있다

성경에는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히 11:21).
할아버지가 물질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손자손녀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한 가정의 할아버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자손녀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야 한다. 한 가정의 할아버

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어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겠다고 결심한 잠언 기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녀 손자손녀에게 귀한 유업을 남겨야 할 것이다(잠 8:21 참조).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하시며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3-26).

대학교 2학년 때, 조지아 주의 사바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다. 설교를 마칠 무렵 나는 민수기에 나온 레위 제사장들의 축복기도를 종종 암송하곤 했다. 당시에는 이 축복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감동시키실 때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도록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면 결코 체

험할 수 없는 어떤 역사를 보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삶에 물질적, 영적 번영을 더하셨다(어휘사전의 ‘축복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아이들을 귀찮게 여겨 군중들을 해산시키려 했을 때,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라고 꾸짖으셨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앉수하시고 축복하셨다”(막 10:16).

예수께서 지상(地上)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행위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셨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눅 24:50,51 참조).

제3법칙 :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 테니스를 가르치려면 테니스 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아내의 운전

연수를 도우려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듯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야 한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명백한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반항적인 기질이 역력했다.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서 도망쳐야 했고, 연모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했다. 창세기를 충실히 읽은 독자라면 속임수에 능한 라반이 속임수의 귀재 야곱을 속여서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신혼 첫날 장막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7년간 일해야 했다.

야곱이 다시 7년을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야곱 때문에 라반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반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창 30:27)라고 말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창 28:3 참조),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했으므로 라반에게 축복이 ‘쏟아져’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한다.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식한 지식과 분별 있는 지혜로 그동안 축적해둔 체험을 전해주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네가 많은 중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라는 말로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가르쳤다.

이기적인 사람은 줄 수 없다. 그들은 진공청소기와 같아서 모든 것을 경험의 그물망 안으로 빨아들인다. 그들은 우주의 블랙홀과 같아서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중심부로 빨아들인다. 블랙홀의 온도는 매우 높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즉시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마저도 폭발하게 된다. 이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의기양양하고 이기적인 자아는 아무리 얻고 또 얻어도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고 마침내 스스로 폭발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할수록 내면적으로 더 강해진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삶에도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당신 자신까지 축복하게 될 것이다.

제4법칙 :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말대로 행동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축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축복이 가져오는 결과를 놓지 못한다.

미신적으로 성호를 긋는 경우

성경을 물신(物神)으로 여겨 고이 간직하거나 매만지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혀친 말을 내뱉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당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우월한 영성(靈性)을 의지해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7)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는지, 당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야 할 것이다(어휘사전의 ‘중보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하라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이삭의 이야기를 주목하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히 11:20).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리라 확신했다. 구약의 족장들은 장차 올 일들과 관련하여 아들들을 마음껏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스리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어휘사전의 ‘믿음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축복을 받는 데에도 믿음이 요구되지만 축복을 하는 데에도 믿음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명기된 축복의 조건들에 주목하기 바란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신 28:1,2).

이 구절은 ‘축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첫 단계로서(어휘 사전의 ‘자기 것으로 만드는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에도 이와 동일한 조건이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며 또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에게 축복을 ‘쏟으심으로써’ 당신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축복할 때 말씀을 활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 1:3)라

고 약속하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신중히 경청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힘써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히 4:12).

그러니 말씀이 약속하는 변화를 냉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맞서도록 채비를 갖추어준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라고 고백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축복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장치도, 자연 발생적인 결과도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막 6:41). 예수님도 축복하기 원하셨을 때, 5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배’, ‘중보’,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 얻기’ 등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모든 의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당신이 먼저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이라는 수도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사람에게 내려온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즉각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다. 당신은 축복의 중재자가 아니다.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크리스천 그 누구도 축복의 중재자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결단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일례로,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당신에게 명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지만 그 축복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인간은

축복을 받는 수혜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제5법칙 :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향상된 삶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종종 번영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하신 일을 주목하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 39:5).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차고 넘쳐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처럼 물질적인 번영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범죄자가 중생을 체험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그는 신임을 얻어 모범수로 선발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는 물질적인 보상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유와 책임이라는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조기 석방 결정을 내린다. 그가 받은 것은 구원과 성품의 성장이라는 축복이다.

구약의 롯기에는 어떤 사업가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어 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상당한 재력가였다

(룻 2:1 참조). 보아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넘쳤던 까닭이 무엇인지 주목하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룻 2:4).

하나님께서 사업체 소유자들, 고용주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신은 고용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당신을 고용한 고용주의 삶에 가치를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당신의 고용주가 번영하면 당신도 번영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동자(일꾼들)들을 축복하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신 28:3).

이 말씀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부가가치를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생산적으로 일할 때, 이윤이 증대되고 회사의 자본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고용주라면 노동자를 혹 고용인들의 삶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라. 결국 당신의 사업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욥은 노동으로 축복을 받았다. 욥기는 욥이 처음에 손으로 노동을 했고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욥 1:10) 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



CEO를 축복하는 기도 예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기업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소서.

고용인들의 형편을 보살피게 하소서.

보아스와 밭의 일꾼들처럼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이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정직하고 신실하여 존경받는 고용주가 되게 하소서.

소유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으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게 하소서.

기업의 번영으로 세상의 빚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며 악에서 떠났기”(욥 1:1)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성품과 영성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육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주목하기 바란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게 하셨음이니이다”(욥 1:10, 어휘사전의 ‘보호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하나님께서는 육이 하는 모든 일을 도우셨을 뿐 아니라 그가 얻은 재산을 보호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통해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우리는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볼 때에 큰 만족을 느낀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짚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시 127:3-5).

체험을 증거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풍성히 축복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건강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만족하고 있으며,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콧방귀를 뀌며 거기에 ‘우연’이라는 딱지를 붙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내가 건강한 것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며,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뿐이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역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내 생활을 지켜본 뒤 모든 것이 단지 근면과 성실의 결과라고 밀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치를 더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회의주의자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회의주의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첫째, 그런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반응을 보일 필요도, 대답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오직 주께 대답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문하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일찍이 나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해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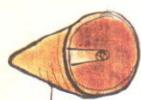
둘째,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8)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셋째, 사람들의 조롱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데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을 때, 그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계속 믿음으로 살며, 계속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눈을 주께 고정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명심하라!



축복하는 사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

2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처방을 따르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어줄 수 있게 된다.

1.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2.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3.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4. 나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5.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6.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축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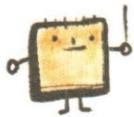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
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2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
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
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
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 네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
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
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
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14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
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5,6절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는 까닭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3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는 하루, 축복하는 인생

내 아내 루스는 딸 데비를 축복하기를 좋아한다. 아내는 딸 데비가 크고 낡은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려 일주일에 한 번씩 딸네 집을 방문한다. 데비가 제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낡은 집을 말끔히 청소하여 좋은 아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내는 딸이 출가한 지 한참 지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골에 사는 딸네 집을 방문한다.

내 아내가 청소를 도와 딸을 축복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돋거나 그들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도록 지원하여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내 아들 샘과 나의 며느리는 맞벌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누군가 필요했다. 나의 아내 루스는 손자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또 아들 며느리와 만나 가끔 동네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곤 한다. 샘은 그런 엄마가 자기 삶에 축복이라고 말하곤 한다. 아내가 아들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아내가 아들의 가족에게 주는 자연적인(물질적인) 축복이다. 하지만 아내는 단지 아이들을 봐주는 할머니에 그치지 않는다. 아내는 손자들을 지극 정성으로 사랑하는 한편 그녀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 체득한 영적인 지혜를 가르친다. 이것은 내 아내가 아들의 가족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이다.

아내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 주인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다. 그녀는 다양한 손님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지만, 아내가 의자에 앉으면 마음속 고민과 문제를 낱낱이 털어놓곤 한다. 그녀는 내 아내를 가리켜 자기 삶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단 하나, 아내가 조용히 들어주기 때문이다. 때로 아내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답해 주어 그녀에게 영적인 축복까지 더해주곤 한다. 아내가 더 이상 그녀와 함께해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미용실 여주인은 그간 받은 이 두 가지 축복으로 더 행복해졌다. 깨달음과 분별력을 얻고 인생의 시련과 도전에 지혜롭게 대처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며, 자연적으로(물질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그들이 번영하게 한다. 우리는 대부분 더 행복해지려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애쓰면서 인생길을 걷는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더 좋게 만

들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을 축복하려고 노력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축복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다. 이 노랫말은 사람들이 삶을 향상시키도록, 더 온화한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돋기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5가지 원칙

- 제1원칙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 제2원칙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 제3원칙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 제4원칙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 제5원칙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돋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제1원칙 :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관계’라는 점을 기억하라. 혹자는 이의를 제기



아내를 축복하는 기도 예문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발견하고 평생 이루어가게 하소서.
남편을 섬기고 신의를 지키며 영적 가장으로 받들게 하소서.
남편을 돋는 좋은 내조자가 되게 하소서.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이 되게 하소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성심을 다하게 하소서.
집안일을 보살피고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아내를 축복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여!
당신의 섬김이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아내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당신을 더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충성을 하나님께서 깊아주시기를!
당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영적 비타민입니다.
믿음의 여인이며 기도의 어미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당신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하며 정통 교리가 곧 기독교라든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교리와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일부라는 점은 명백하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십자가 죽음을 중심에 놓는 전전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도 없이 전전한 교리와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건만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수 없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영향을 끼쳐서 크리스천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했을 때, 혹은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당신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군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축복했듯이 당신도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축복해야 한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는 깊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사랑(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정에 근거한 사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다른 사람

을 축복한다. 어떤 교사가 훌륭한 스승이라는 명예와 평판을 얻기 위해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특별 과외 지도를 할 수도 있으며, 자녀들이 용돈을 더 타내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척 행동할 수도 있고, 식당 종업원이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본심과 달리 손님들을 축복하는 체하며 식사 시중을 들 수도 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기적인 축복과 정반대이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며, 출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하려면 사람들을 믿어야 하며, 사랑해야 하며, 소중히 여겨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친한 친구인 존 맥스웰(John Maxwell, 크리스천 리더십과 경영 분야의 권위자)에게서 큰 교훈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는 15년 동안 같이 골프를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무척이나 경쟁했다. 그 경쟁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는 몇 년간의 시합 전적(戰績)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우열을 가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존이 더 이상 전적을 기록하지 않았다. 존은 “친구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골프 코스를 거닐며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더해지기 원한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너무 놀랐다. 하지만 그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의 본질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승리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승리하도록 도운 횟수를 헤아리는 것 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기억하라! 친구가 승리하도록 돋는 것 이 바로 그 친구를 축복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전에 반드시 유념할 사항

-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 그들이 당신을 위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하라.
-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강한 흡입력으로 그들을 사로잡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당신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주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유유히 흐르도록 해야 하며,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스며 나오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본받기 원하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 내 말을 엉뚱하게 곡해하지 말기 바란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들을 향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4,15)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여인의 향수 냄새에 이끌려 그녀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되듯이, 당신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그녀의 향기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의식하게 되듯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할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들이 흠뻑 취할 수 있는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제2원칙 :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축복에는 자연적인(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이 두 측면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 이런 축복을 할 때에는 굳이 영적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일례로, 당신의 이웃이 휴가를 떠나며 신문이나 우편물을 수거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당신은 흔쾌히 그 이웃의 부탁을 들어준다. 이런 행동에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이웃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들이 조문객들을 접대하고 장례를 잘 치르도록 허드렛일을 돋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들이 슬픔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럴 때 당신은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영적인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사람을 기억하는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낸 다음, 병든 사람을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막 2:5)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떠메어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 그들은 중풍병자인 친구가 그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축복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이도록 축복하고 도와야 한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었다. 그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갈망했던 병자 친구의 믿음과 결합되었을 때에 치유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다(어휘사전의 '동의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중풍병자인 친구 역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믿어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이 믿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어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깨닫도록 도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어라.

크리스천 부모들은 갓난아기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 “아기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목회자가 아기의 머리에 물을 뿌려 세례를 베풀 때, 그 부모와 교인들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그들은 아기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임으로써 아기를 축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나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을 보고 상대를 축복하지 말라. 그보다는 그들의 미래에 근거하여,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여 축복하라(어휘사전의 ‘예기적 축복’과 ‘봉헌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당신 주변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절실했을 것이다. 그럴 때에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라는 말로 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 당신 주변에는 갈등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라고 말하며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곧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당신의 축복의 대상을 ‘영적인’ 사람이나 크리스천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대답하여 확신을 주어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표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실어주어라.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어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더해주어 그들을 축복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지 분별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기쁜가?
-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가?
-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힘을 얻는가?
-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여 힘을 얻는가?
-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흡족한 마음이 드는가?
-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할 때 행복한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가치를 더 해줄 때,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업의 주도권은 대체로 우리 신자들이 쥐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하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더해야 한다. 무엇보다 큰 가치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막 11:22)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명령이다.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을 축복해야 할 것이다.

제3원칙 :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겠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연적인 방식으로(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잔디 깎는 기계를 고쳐서 이웃을 돋는다면 그는 정원과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이웃의 능력에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한 셈이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과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든다.

신실하지 못한 크리스천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겠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자연적으로(물질적으로) 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축복을 베푸실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크리스천을 사용하신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전히 헌신하는 신자는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된다.

당신이 깨닫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당신이 크리스천인 한 당신은



친구와 동료를 축복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최고의 친구란다.

친구야, 난 무조건 네 편이야.

당신의 환한 미소가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즐거움이 됩니다.

네가 곁에 있어서 늘 큰 힘이 된다.

수고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보는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렴.

하나님의 도우시는 오른팔이 항상 너와 함께하시기를!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큰 유익이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주위를 환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힘내.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당신의 멋진 재능과 비전과 사명을 찾아 더욱 전진하시기를!

당신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은사를 갖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은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직원의 컴퓨터를 고쳐주거나 서류 작성을 도와줄 때, 당신은 그들의 업무능력에 가치를 더한다. 당신이 어떤 친구에게 기도응답을 위한 금식의 영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게 된다(어휘사전의 '깨달음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세상 사람들조차 격려하고 응원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때, 그들도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자기를 돋는 사람을 무시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끌리지 않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구별해낸다.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가뜩이나 벼거운 인생살이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자신을 비난하고 혹평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사람들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유형

-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 남을 낙심시키는 사람
- 남을 비판하는 사람
- 남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신은 때로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회의를 해야 하며,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고,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사무실에 앉아 일상을 보내야 한다. 그러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그들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차단하거나 그들이 한통속이 되어 불평하고 푸념하게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떠난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당신이 천한 태도를 보이며 늘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귀한 가치를 없애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치를 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찌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당신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지도 모른다.

둘째, 비판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조차 누군가 자신을 격려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비록 그들이 당신을 축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도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과 수용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 6:31)라고 가르치셨다. 불평하는 자들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원한다. 그렇다면 기꺼이 격려하라! 격려와 칭찬의 말로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그들을 변화로 이끌 기반을 마련하라(어휘사전의 ‘칭찬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랑할 힘을 얻고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다.

당신은 크리스천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들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첫째, 당신은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간증’을 들려줄 수 있다(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실로 감동적인 간증을 했다).

둘째, 당신은 그들에게 ‘수용’과 ‘인정’(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을 포함하여)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당신은 그들에게 ‘믿음’(당신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간증하면서)을 줄 수 있다. 그들이 당신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힘을 얻어 하나님께 손을 뻗을 것이다.

넷째, 당신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부가된 가치를 안겨줄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때 그들이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먼저 발걸음을 뗄어야 한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관계의 필요성 특히 크리스천과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당신이 이번 주에 도움을 주었거나 가치를 더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백지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들의 삶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1에서 3까지 등급을 매겨라. 사소한 가치나 도움을 주었으면 1, 평균적인 수준이라면 2, 강렬하고 인상적인 가치나 도움을 주었으면 3으로 등급을 매겨라.

이제 이번 주에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른 종이에 기록하라. 이들은 당신을 축복하여 당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준 사람들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급을 매겨라. 그리고 비교하라. 받은 것이 더 많은가, 준 것이 더 많은가?

만약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면, 당신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어린이와 같다. 어린이는 남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어린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어렸을 때 자신이 받았던 것을 자기 자녀에게 베푸는 것으로 채무를 상쇄한다. 그렇다고 늘 받는 어린이가 인생에서 전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을 돌봐주는 어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어린이인가 아니면 베푸는 어른인가?”라는 질문

과 함께 “나는 내 삶에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스스로 던져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5가지 요소

- 하나님과의 관계
-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 삶의 의미와 목적
- 인생의 성취감
-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

제4원칙 :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그들이 당신의 축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느낀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전도를 사생활 침해로 여기기도 한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는 의식도 없고, 죄로 인한 고뇌도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방식을 바꿀 의향도 없고,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한다

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하려고 하면 완강히 거부하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당신이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심을 표명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들을 축복하려면 그들의 삶의 목표, 꿈과 욕구와 필요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문해보라.

그렇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다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때로는 돈도 필요하다. 또 자기중심적인 생활방식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는 질문을 던지고 관계를 맺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된다. 그들이 당신의 질문에 답할 때, 그들의 대답을 신중히 경청하라. 어쩌면 단지 듣는 것, 그들의 말을 존중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그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할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 당신의 ‘설교’나 ‘성경 이야기’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중거하는 간증으로부터 시작하

는 것이 좋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종종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거부감 없이 당신의 간증을 경청할 것이다.

물론 당신이 간증할 때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대화와 체험담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때로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자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신다는 것을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성 프랜시스는 “일상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에만 말을 사용하라”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는 그들의 문제에 적용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한다(민 6:27 참조).

사람은 누구나 만족을 갈구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시 1:1-3 참조). 많은 사람들이 끈질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오직 하

나님만이 궁극적인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빌 1:6 참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요 14:6 참조).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 진리를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매우 합당한 것이다. 단, 기도를 행동하지 않기 위한 핑곗거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신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기도를 더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탐색하라.
- 질문하라.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신중히 경청하라.
-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실 수 있다.
-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실 수 있는지 분명히 말하라.
-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전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탐색하라.



제5원칙 :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

대학생선교회(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Bill Bright)는 ‘사영리’(Four Spiritual Laws)를 최초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이용하도록 했다. 그는 ‘사영리’의 첫 번째 원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본 원리, 곧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원리를 제시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라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으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매우 중요한 전도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축복할 때, 그들이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로 위협하고 겁을 주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를 쓴다. 물론 몇몇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동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동기를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위

한 놀라운 계획으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모든 캐디들이 흰색 주름치마에 검은색 티셔츠를 반쳐 입은 젊은 아가씨들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놀랐다. 내 담당 캐디는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배정되었다. 그녀는 영문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다.

나는 1번 홀의 티샷을 끝내자마자 그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그녀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 다닐 때 ‘사영리’에 대해 공부했다고 말하면서 “부처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제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지요”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골프 코스를 돌면서 나는 그녀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했다. 그런데 그녀가 “제 평생의 소원은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 사영리를 만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빌 브라이트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20대 여성 특유의 발랄함과 쾌활함으로 폴

짝풀짝 뛰며 소리쳤다.

“정말 빌 브라이트를 아세요?”

“알고말고요.”

“다음에 그 분을 만나면, 사영리를 읽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
의 계획을 발견한 한국 아가씨가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
가씨의 꿈이 대학생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학
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렇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
해 마련해놓으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당신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 사람이 행복해질 때, 당신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갈망하는 큰 축복의 하나가 아닌가?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 은사(하나님께서 ‘남을
섬기라고’ 주신 능력)를 발휘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바울은 “각
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고전 7:7)라고 말했다. 당신
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때, 당신의 인생을 위
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은 물론, 그들과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모두 기쁘게 할 것이다.

축복하는 자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하셨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한 나사렛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행한 일들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며, 예수님께 대답하기 시작할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껴보라.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넘실대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발견하도록 도우라. 그러면 행복한 그들을 통해 행복해질 것이요, 기뻐하는 그들을 통해 기쁨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때,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더욱 커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설명하라. 그렇게 당신의 은사를 합

당하게 사용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축복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

3

우리는 5가지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자연적(물질적), 영적 가치를 더할 수 있다.

1.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어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4. 나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관심을 쏟아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님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팝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팝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팝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하려면 사람들을 믿어야 하며,
사랑해야 하며, 소중히 여겨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입재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놀라운 힘을 얻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접근방식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몇 해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전국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198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개신교 신자의 수는 전 국민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전 국민의 15퍼센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포클랜드전쟁(영국령의 섬인 포클랜드를 1982년 아르헨티나가 일시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군사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패배로 아르헨티나의 국가경제가 붕괴되었다)의 패배와 같은 외적인 환경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는 국민 일각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강력한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등 영적인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에 극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사람 가운데 에드 실보소(Ed Silvoso)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사람인 에드는 빌리 그래함과 남아메리카의 복음주의 지도자 루이스 필라우(Luis Palau)의 남아메리카 전도운동을 총괄하는 기획관이

었다. 그러나 그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투우장과 축구장을 임대했고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설교자들을 초빙하여 남아메리카의 도시들을 ‘전도운동’으로 집중 포격하며 수년 동안 사역한 뒤 스스로 은퇴했다. 그런 다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위성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인구 70만의 로사리오로 향했다. 그는 전도대원들을 ‘2인1조’로 편성, 로사리오의 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다. 이 새로운 전도법은 곧 ‘땅 밟기 기도’(prayer-walking) 혹은 ‘현장기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스템과 함께 복음전도에 전략적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부정적인 내용의 설교를 강조한 반면, 에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롬 2:4)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에드는 전도대원들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도시의 골목 어귀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수첩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금 전에 저 희가 골목을 다니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 골목에 있는 모든 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주기를 바라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사람들의 대답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에드와 전도대원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보의 질문과 기도를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셔서 전국적인 규모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에드는 전도대원들에게 시의회가 모일 때 시청 주위를 계속 걸어다니며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시장에게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도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요?”라고 물었고, 경찰서와 다른 관공서와 사업체와 학교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매우 낯설고 혁신적인 전도법이었다. 전도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죄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 사람들의 죄를 자각시켜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물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와 무관하게 그들의 삶에 자연적인(물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축복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부가가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한다. 하지만 에드와 그의 전도대원들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적으로(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할 때,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사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몇 가지 명백한 결과가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

-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 그들이 힘을 얻는다.
- 그들이 기회를 발견한다.
-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 그들의 잠재력이 중대된다.
- 당신과 그들의 인생의 사명이 더욱 명확해진다.
- 그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확대된다.
- 당신이 선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제 이 9가지 사실의 면면을 살펴보겠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또 당신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

1.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 말은 축복의 수혜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뜻에서 ‘구원의 축복’을 의미한다. 사도 요한이 밝혔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요 1:12 참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골 1:27 참조)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수혜자와 동행하시며 그가 자신을 위해 언급한 축복이 성취되도록 노력하게 하신다는 뜻에서 ‘임재

의 축복'을 의미한다. 축복의 수혜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려면 자신을 위한 축복의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축복의 수혜자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막 11:22-24; 히 11:6 참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갈구한 시편 기자의 기도에 주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사”(시 67:1).

신자들이 성찬식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도 이러한 임재의 좋은 예가 된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막 14:22), 그 축복은 떡을 나눈 모든 이들에게 미쳤다. 떡을 먹을 때, 그것이 그들 몸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통해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보호의 울타리를 쳐달라고 기도한다(욥 1:10 참조). 그것은 어떤 마술적 능력을 지닌 신비한 울타리가 아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시 84:11)라고 고백했다. 당신의 축복은 이처럼 보호의 의미도 갖는다(어휘사전의 ‘보호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2. 그들이 힘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놀라운 힘을 얻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격퇴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두 팔을 들어올렸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힘이 떨어져 팔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압도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야 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홀이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모세의 두 팔을 견고히 받쳐주어 모세의 축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축복이 되었다. 당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그를 축복할 수 있다. 당신은 사람들을 격려할 기회를 찾아서, 칭찬할 행동을 찾아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세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남편을 걱정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에 무척 상심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상심만 더욱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목회자가 몇 가지 소식을 가지고 그녀를 심방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 예문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소서.

교회와 사회에 속한 공동체에서 역량 있는 리더로 세워주소서.

세상의 지배력에 굽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가정의 영적 가장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소서.

남편을 축복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말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과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보내주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지칠 때 당신 옆에 내가 있다는 거 있지 마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직장에서 업무의 매듭과 고리를 푸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수고에 항상 감사해요.

당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했다. 그 목회자는 그녀의 남편이 예전과 달리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고 전 했다. 그리고 여전도회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 아이들과 남편이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는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치유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몇 개월 동안 차분히 요양하도록 권고하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4)라는 말씀을 들려주었다. 목회자가 자리를 뜨자 그 젊은 부인의 낙심 또한 구름이 걷히듯 완전히 사라졌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심방을 통해 그녀를 축복해주셨기 때문이었다.

3. 그들이 기회를 발견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리갈’ 출판사의 사장인 빌 그레이그와 점심을 먹은 다음 막 음식점을 나가려고 하는데, 식당 한구석에서 한 부자(父子)가 초라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젊은 아버지에게 나를 소개한 뒤에 어린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

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옆에 있던 빌 그레이그도 자신을 소개한 다음 자신이 가까운 장로교회에 나가고 있으니 그 교회에 오라고 초청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젊은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빌 그레이그로부터 전해 들었다. 1년 전에 식당에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도록 내 기도에 응답해주신 것이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매우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바울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딤후 1:6)라고 촉구했다. 에베소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였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능력이 전임 목회자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주목하라. 바울은 디모데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상기시켰다.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기회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디모데를 축복했다.

4.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길을 혼자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나란히 걷는 것은 실로 중요한 축복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와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어휘사전의 '친교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일찍 부모를 잃은 한 소년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 소년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원망하며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 소년의 인생을 바꾸는 데 무엇이 필요할까? 소년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따로 불러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단다"라고 격려했다면 손자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네가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은행에 적금을 들어놓았으니 열심히 공부하렴"이라고 말했다면 소년은 그 격려에 힘을 얻어 세상에서 꼭 필요한 훌륭한 사업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그런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소년은 길이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곧 소년의 삶을 바꾸어놓는 축복이다.

모압 여인인 룸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다. 그녀는 외국인이었다. 옷 입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베들레헴 사람들 의 생활방식은 룸의 생활방식과 완전히 달랐다. 잘못하면 천덕꾸러기 가 되어 유대 사회로부터 내쳐질 위기였다. 하지만 룸은 낯선 외국 땅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시어머니 나오미가 의지가 되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일할 곳을 일러주며 “내 딸아 갈지어다”(룻 2:2)라고 격려했다. 나오미는 그 동네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운 인척의 밭에 나가 떨어진 곡식을 줍도록 며느리에게 일렀다. 나중에 나오미는 밭을 소유한 가까운 인척 보아스가 룸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오미는 다른 시어머니들과 달리, 보아스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며느리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다(룻 2:22 참조). 나오미는 룸이 결단을 내리도록 도왔고 룸이 신실한 자세를 보이도록 격려했다. 그렇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룸을 축복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축복했으므로 그들은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룸은 배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자녀가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고, 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마 1:5 참조).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고부간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기도 예문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궁휼히 여기게 하소서.

합력하여 가정의 화합을 이루게 하소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여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되게 하소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늙고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심한 뜻처럼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게 하소서.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한 나오미처럼 아끼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방의 며느리를 축복하여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의 동기도 더욱 순수해질 것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한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만의 작고 좁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처지와 당신의 처지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개인플레이가 아니다. 크리스천은 혼자 놀지 않는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혼자 살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해 살지도 않는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명령과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결국에는 당신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그들과의 관계도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면서 동시에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나 아내를 탓하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지 못하며, 언제나 남편의 속을 긁는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지 못한다.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동생과 불화하면

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흔히 형제자매는 다투면서 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다툼이 잣아질 경우, 서로의 마음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굳어지면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당사자들을 짓누른다. 모진 말이나 행동으로 혈육들을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축복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예수께서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4)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 원리는 형제자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나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에서는 축복이 소통할 수 없다. 그러니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우정은 빙정거림 위에 설 수 없다. 우정은 신뢰와 존중 위에서만 설 수 있다. 친구의 사랑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먼저 축복하라. 축복을 통해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때, 친구와의 관계 또한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농구 경기에서 우승한 팀의 감독들은 한결같이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뛴 결과 이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언젠가 어떤 감독이 “스타의 진정한 자질은 나머지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독

불장군은 팀워크뿐 아니라 팀의 우승 가능성마저 파괴하고 만다. 농구선수들 사이에는 “공이 링을 통과하려면 열 개의 손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이 격언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는 신앙생활과 신자의 축복,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한 사람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되도록 돋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성공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여 그가 성공을 향해 도약하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다. 사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통달할 때, 당신은 기독교의 정수(精髓)에 상당히 근접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5.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응답 받는 기도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관계, 곧 당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과 견고한 관계

를 구축하여 그 관계를 튼실하게 키워나갈 수 있음을 물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혼자 기도했을 때에는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어휘사전의 ‘친교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적대하는 죄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정말로 기대한다면 반드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처방이 없다.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명심하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부지중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까맣게 잊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라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당신은 모르지만 상대의 가슴에 상처와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기 때

문이다. 이럴 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라. 자연적인(물질적인) 축복부터 시작하라. 사람은 누구나 상대를 위해 어떤 일을 함으로써 자연적인 축복을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역과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상대를 영적으로 축복하라. 이 과정에서 상대의 가슴에 있던 앙금과 미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며, 그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함으로써 두 사람이 기도의 토대 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6. 그들의 잠재력이 증대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잠재력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섬기되 가장 잘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 욕구가 옳지 못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욕구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오직 우리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낸다. 그러나 이제 당신 자신의 능력 너머를 바라보라. 당신 자신의 사역 범위 밖을 바라보라. 당신이 축복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영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울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당시의 크리스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 예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분열하지 않고 일치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증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천들은 그를 신뢰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기 때문이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행 9:26,27).

아마 혹자는 바나바가 예전에 크리스천을 박해하던 자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가 실수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바나바는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고 있었다. 바나바는 일찍이 ‘격려의 아들’이라 불렸다(행 4:36 참조). 그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으며, 권면하는 사람이었으며,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는 바울을 예루살렘의 크리스천들에게 소개하여 바울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것은 바울을 축복하는 바나바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래의 사역을 위해 격려를 받았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되지 않았는가?

사실, 바나바는 바울의 삶을 적어도 두 번 이상 축복했다. 이 일이 있은 지 10여 년 후에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했고, 능력 있는 성경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바울에게 가르치는 은

사가 있다는 것과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했던 것을 기억 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5,26).

당신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증대 시킬 수 있다.

7. 당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의 사명이 더욱 명확해진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고 말할 것이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에 놓을 것이며, 하나님의 군대에 자원할 것이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재차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자고 청할 것이다.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여 함께 캠핑을 하자고 친구에게 청하는 초등학교 꼬마처럼 우리의 왕을 위한 일에 동참하자고 상대에게 청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 사람의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도울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비통해 하기는커녕 자기의 뒤를 이을 전사(戰士)인 여호수아를 축복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종자(從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신 1:38)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고 떠받들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했다. 이는 차기 지도자를 축복하기 위한 모세의 방식이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밝혔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켰고, 주께 순종하라고 격려했다. 이렇듯 모세가 격려와 충고의 말로 축복하자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사명을 완수했다.

8. 그들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확대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 좌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단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의 죄를 가차 없이 비판하는 한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

는 자들을 거의 극단에 가까운 용어로 엄히 정죄했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드럽게 권면했다.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3,4).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야 자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수준을 당신이 받은 축복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고백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의미였다.

9. 당신이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축복할 때 당신은 예수님 말씀에 정직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상대방을 축복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교우를 축복하는 기도 예문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설교자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소서.

맡은 직분과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지속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승하게 하소서.

서로 섬기며 화합하게 하소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교우를 축복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말

○○○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성도님을 통해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 속의 축복과 언약이 당신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당신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당신의 한 번의 기도가 나에게 평생 힘이 됩니다.

당신은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당신의 섬김이 교회 성장에 밀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이 당신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더욱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강건해진다. 이 경우에는 축복하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므로 당신의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몹시도 열망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강해질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강해진 몸을 통해 그 축복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이 당신을 축복할 때, 두 사람 모두 성숙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전체가 더욱 강건해질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가치를 더하고 또 다른 이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가치를 더한다.

또 두 사람이 서로 축복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목하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
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이로소이다”(요 17:22,23).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서로 축복할 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
천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돌보
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 함
몰되지 않고 서로 축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축복의 방법

격려할 기회를 찾아라

친절한 말을 하라. 도움을 주는 말을 하라. 존중하는 말을 하라. 다
른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칭찬의 말로 축복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그런 행위가 축적되어 습관이 되면 경건한 성품을 갖게 된다.



칭찬할 행위를 찾아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축복하면 당신도 그 사람을 축복하라.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이나 안내위원들이나 심방대원들을 보거든 친사와 감사와 존경의 말을 건네라.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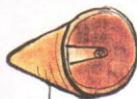
누구나 일을 하다보면 지친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봉사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는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말과 봉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 필요하다.

관계를 강화하라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가족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 이것이 가족들을 견고히 결속시킨다. 교회에서도 다른 곳에서든지 어린이들을 만나면 가능한 한 격려하는 말을 건네도록 하라. 어린이들을 나무라거나 당위만 설교하는 어른이 아닌 따스하게 격려하는 어른이 돼라. 당신만이라도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돼라.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우는 어른이 돼라.

소외된 자들을 찾아라

당신 주변에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물론 어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바나바를 기억하라. 당신이 바나바가 되어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옛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직장에 새 직원이 들어오면 환대하라. 바나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모든 사람이 친구를 원한다. 따라서 당신이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것이요,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

4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당신과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게 되는데 그 가치들은 매우 실제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1. 나는 다른 사람을 더욱 강하게 하여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와 은혜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시하여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더 분명해진다.
5.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내 사역이 한층 중대된다.
6.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내가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했음을 세상에 천명할 수 있다.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 시편 67편 7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 시편 112편 1,2절

대소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 시편 115편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시편 128편 1,2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
구하노라 – 요한삼서 2절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세울 것이며,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채비를 갖추어줄
것이며, 그들을 건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자녀 축복의 날

청명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날, 아이들을 대동한 부모들이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교회에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행사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만 같았다.

‘자녀 축복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동네 전체에 배포한 것이 효과를 거두었는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십시오!”라는 내용의 초대장을 받았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과중한 학습부담으로 고통당하고,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쉽게 빠지는 현실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랐던 부모들이 마침 한 교회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겠다고 제안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구름처럼 모여든 것이었다.

‘자녀 축복의 날’은 단순히 유아세례를 베푸는 날이 아니었다. 그 교회는 ‘자녀 축복의 날’을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자녀들이 잘 배우고 성장

하여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원한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교회는 그 날을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한 떠들썩한 전도행사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훌륭한 성품과 믿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자녀 축복하기’ 행사가 치러졌다. 그 교회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교회 강당에 임시로 설치된 간이 벽 뒤에 자리를 잡았고, 부모들은 축복기도를 받기 원하는 장로나 목회자를 선택했다. 어떤 목회자는 갓난아기를 안고 축복했고, 어떤 장로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좀 더 큰 아이들은 선 채로 안수기도를 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축복기도와 동시에 즉석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어떤 부모들은 별도로 상담을 청했다.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합니까?”라고 부모들에게 물었다. 이처럼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웃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자 많은 부모들이 마음을 열고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축복의 기도

1994년 가을, 나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개최된 교단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금요일 저녁, 우리 교단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본디 쿡 목

사와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쿡 목사의 사모가 방금 출산을 해서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정을 이해했고, 그와 그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 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 날 아침, 웨스트버지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회의장에서 쿡 목사를 만나 처리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그런데 그가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태우러 오전 중에 다시 병원에 가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가 태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산모가 퇴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전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내가 연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시간이 되어 막 연설하려는데 복도 끝 출입문 근처에 쿡 목사와 사모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두 팔 가득 무엇인가를 안고 몹시 우쭐대고 있었다. 나는 그 ‘무엇인가’가 갓난아기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 뒤에 계신 쿡 목사님! 앞으로 나와 아기 좀 보여주세요!”

쿡 목사가 청중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오자 내가 “우리는 오늘 이 아기를 하나님께 봉헌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나는 그 아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쿡 목사의 부친 역시 목회자여서 그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도 앞으로 나오라고 청했다. 나는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께 바칩니다. 이 아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아기도 그들을 따라 전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주님을 섬기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기를 주께 바칩니다. 이 아기가 일찍부터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알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이 아기가 성결함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 아기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옵소서. 그의 생명을 해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라게 도우시며, 영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깨우치시며,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아기가 주님 품에서 자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기의 아빠 본디 쿡 목사와 엄마 테레사 사모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기를 양육하게 하시며,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새 생명을 키울 소중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기의 조부모 쿡 목사 부부를 축복하셔서 지혜로 아기에게 본을 보이게 하시며, 아기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돋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바른 축복의 경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 그 작은 생명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예의나 인사치례 혹은 습관에 따라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축복할 때 반드시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정해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경로를 지정해두셨다는 것에 불만을 품지 말기 바란다. 우리의 인생에도 정확한 경로를 요하는 일들이 실로 많지 않은가? 우리 모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만 해도 그렇다. 내 노트북 컴퓨터를 예로 들자. 누구든지 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암호는 내 비서와 나만 알고 있다. 우리가 정확한 암호를 입력해야만 컴퓨터는 인터넷 세상을 펼쳐 보여준다.

내 노트북 컴퓨터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나 휴대폰을 사용할 때나 음성 메일을 들을 때나 금고를 열 때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 정확한 경로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이유가 있을까?

따라서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물론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을 포함해서) 무던히 애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고 그대로 따르기 바란다.

우리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어린이를 축복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5가지 단계가 가장 훌륭한 답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어린이를 축복하기 위한 5가지 단계

- 제1단계 의미 있는 신체 접촉으로 축복하라.
- 제2단계 말로 축복하라.
- 제3단계 축복받는 아이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라.
- 제4단계 축복받는 아이의 특별한 장래에 대해 묘사하라.
- 제5단계 축복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게리 스몰리 · 존 트렌트 공저 「축복의 언어」에서 인용)

이 5가지 단계를 따를 때, 어린이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다

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삶에 크나큰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 : 의미 있는 신체 접촉으로 축복하라

축복할 때 상대방과 신체적으로 접촉하라는 내 말이 무척이나 당혹스럽게 들릴 것이다. 어른들을 축복하는 경우, 특히 이성(異性)을 축복할 때, 상대가 당신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린이를 축복하는 경우에도 온갖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이 높은 이 시대의 풍조 때문에 그 아이의 부모가 당신을 아동학대로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만질 때,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교회에서 나의 손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동안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손자녀석은 할아버지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것이 불편했는지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어찌나 꿈틀대며 안간힘을 쓰던지 내 어깨가 다 들썩일 정도였다. 어린아이가 그 의식(儀式)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내 손자의 귀여운 반항을 보고 키킬거리며 웃었다.

포옹으로 축복을 전하라

청년들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따스한 포옹을 받지 못하며 성장해 정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젊은이들을 종종 대한다고 말한다. 부모의 사랑의 포옹으로 전달되는 ‘수용의 느낌’을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십대를 지나면서 종종 정서 장애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포옹이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포옹은 “너는 특별해!”라고 말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제 부모가 자기를 매우 특별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어렸을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엉엉 울며 엄마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겼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갑자기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았는가? 어머니의 포옹은 자녀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 포옹은 축복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이다.

때로는 포옹이 자연적인 축복이 되기도 한다. 당신의 딸이 피아노 연주를 마쳤다. 당신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오는 딸을 힘차게 안아준다. 그 애가 실수했는지, 완벽하게 연주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딸을 꼭 끌어안는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에게 인정(認定)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때로는 포옹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기도 한다. 당신이 어린 소녀와 함께 기도한 후에 그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준다.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했을

때, 당신의 포옹은 그 아이에게 영적인 인정의 의미를 전달한다.

입맞춤으로 축복을 전하라

이삭은 아들을 축복하기 원했을 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창 27:26)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입을 맞추어준 자녀에게 사랑을 전한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입맞춤보다 더 강한 사랑의 표현은 없을 것이다.

무릎에 앉혀서 축복을 전하라

할아버지가 손자를 번쩍 안아 무릎에 앉힐 때, 손자는 특별한 순간을 체험한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할 일들과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일러주면서 어린 손자를 축복한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은 손자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의, 더 심오한 메시지를 받는다. 손자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아버지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과거와 교감한다.

나도 서너 살 무렵, 할아버지가 나를 번쩍 안아 노새에 태워주었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줄곧 깔깔거리며 웃었고, 우편집배원 아저씨와 시합을 하며 들판을 달리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늦은 밤 벽난로 앞에서 나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다른 기억은 희미하게 사라졌는데 그 기억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그보다 더 멋진 추억이 있을까? 할아버지

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예수께서도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앉수하시고 축복하셨다”(막 10:16). 어린이들을 향한 축복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안수하며 축복을 전하라

나는 아기를 축복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내가 봉직하고 있는 리버티대학 기독교학부 학장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코니 닐랜더 부인이 얼마 전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내가 축복기도를 해주었다고 말하면서 그 아기가 지금 10개월이나 되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아장아장 걸음마 연습을 하는 그 아이를 번쩍 안아 머리에 손을 얹고 다시 축복했다.

나는 왜 그렇게 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과 내 축복기도를 통해 그 아기의 삶에 가치를 더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며, 축복은 아무리 자주 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악으로부터 그 아기를 보호해달라고 주께 구했고(보호는 축복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다), 장차 그 아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의 삶을 축복하시리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아기의 엄마인 코니 부인이 딸을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아기엄마와 내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아기가 어찌 축복을 받지 않을 것인가?

야곱은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

“이스라엘의 우수(右手)를 펴서 차자(次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左手)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창 48:14).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특히 자녀와 어린이들을 축복할 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잘 알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히 11:21)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수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

당신은 악수를 청하며 상대가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상대와 악수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손을 잡는 것도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소한 신체 접촉이 그들에게 “당신은 특별

합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보다 더 풍부하게 감정을 드러냈다. 그들은 포옹했고, 입을 맞추었고, 서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요즘은 편안하게 남의 자녀 머리를 쓰다듬어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당신의 선한 의도나 동기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신체 접촉을 통해 다른 집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신중을 기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사랑과 수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신체 접촉을 통해 아이들을 축복하라. 아이들이 자긍심과 건전한 자아를 키워나가도록 도우라!

제2단계 : 말로 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은 당신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자연적인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믿음의 말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막 11:23 참조).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혹자는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축복해도 하나님께

서 그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실 텐데 굳이 당사자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물론 은밀하게 기도하며 축복해도, 그 중보기도가 당신이 축복하는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성경은 상대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say to them)…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3-27)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도록,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도록 가르치셨다.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드러내어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마 15:18 참조). 우물물은 두레박에 담겨 우물 밖으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말이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특히 자녀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

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은밀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로 축복 해야 한다.

둘째, 어떤 사람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깊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 때문이며, 당신이 그 현장에서 당신의 믿음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아닌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히 믿음을 선포할 것이요, 그럼으로써 놀라운 체험을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축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만이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자녀들이나 다른 아이들 앞에서 축복하는 말을 하라. 당신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이 당신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의 믿음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셋째, 당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

루게 하시리라”(마 18:19)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될 것이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서로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히 11:20 참조). 그러나 그 믿음이 ‘말로 선포된 믿음’ 이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삭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에게는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의 소유권이 없었다. 그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번영시켜주셔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리라 굳게 믿었다. 그에게는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들 야곱을 축복하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창 28:1)라고 말했다. 이삭은 야곱이 받게 될 축복이, 그가 악한 부족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삭은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창 28:2)라고 말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특별한 결혼 조건을 지켜야 했다. 야곱의 축복은 성결함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야 했다.

또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예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이 터지게 하소서.
부모의 하나님아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건강하게 몸과 지혜가 자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하소서.
진실하고 온유하게 하소서.
오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해가게 하소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소서.

자녀를 축복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말

우리 ○○○, 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의 왕자(공주)란다!
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야.
주위 사람들이 너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지는, 유쾌한 아이가 되어라.
아들(딸)아, 네 마음이 즐거우면 엄마(아빠) 마음도 즐겁단다.



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창 28:3)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삭은 야곱의 씨들이 강대한 민족을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는 축복을 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했을 때, 그의 장막에는 20명 내지 30명의 식솔만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야곱이 번성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삭은 그 믿음을 심중에 숨겨두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두지 않았다. 대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두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상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라. 특히 자녀를(다른 어린이를) 축복할 때에는 축복을 받는 어린이뿐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와 조부모와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의 말을 듣도록 해야 한다(어휘사전의 ‘예견의 축복’ 항목을 참조하라).

혀의 영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계속 상기시키신다. 성경은 혀를 말(馬)의 입에 물린 ‘재갈’로 묘사한다. 작은 재갈로 덩치 크고 힘센 짐승을 통제할 수 있다. 혀는 또한 배의 ‘키’와 같아서 그 작은 것이 커다란 배를 마음대로 조정한다(약 3:3,4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

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약 3:8,9)라고 덧붙였다. 당신은 혀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을 축복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면 어쩌면 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당신이 축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옳지 못한 것을 축복했기 때문이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했기 때문이다.

옳지 못한 사람을 축복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곧 우리의 삶이다. 따라서 우리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삶을 통해 상대를 축복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 갓난아기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부모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기를 키우겠다고 서약하며, 목회자는 부모가 그 아기를 잘 키우도록 교회가 후원하겠다고 서약한다. 그리고 목회자와 부모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아기를 축복해달라고

주께 기도드린다. 신자들이 입으로 서로 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입으로 상대방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더하도록 ‘삶’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카운슬러인 스몰리와 트렌트는 우리의 말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늘 꾸짖고 비난하기만 하는 부모는 자녀의 자긍심을 파괴한다. 그런 부모 슬하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뒤틀린 자아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녀를 칭찬하며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가치를 더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대치를 높여라. 그들이 문제와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나를 외가 가족 묘지에 데려가곤 했다. 묘지 앞에는 2미터 높이의 커다란 화강암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1732년부터 미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어머니 조상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한 가족의 계보를 밝히고 있는 그 돌은 자긍심의 상징이었다. 어머니는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라! 너는 무엇이든 마음먹은 것을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 정했다. 나는 그 돌 앞에 설 때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오는 것만 같은 의무감에 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돌은 마치 “조상



들이 했던 것처럼 너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돌 앞에 서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행위와 말로 나에게 나에 대한 가족의 기대를 전달하셨다. 그것은 내게 축복과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자긍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도 있으며, 자녀들의 미래에 정서적인 족쇄를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딸에게 “네 방은 왜 항상 그렇게 더럽니? 넌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말하면, 그 자녀는 아버지가 자기를 형편없는 애로 여긴다고 느낄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정말 그런 애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의 아들에게 “동생만큼도 못해? 이 칠칠치 못한 놈아!”라고 말하면 그 자녀 역시 자신을 실패자로 여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늘 비판하고 꾸짖으면 자녀들은 ‘나는 실패자야’라는 자의식 속에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

언젠가 내 친구 존 맥스웰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단순하고도 기계적인 동작으로 자녀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녀들이 조금만 잘하면 구름 위로 날아 춤을 추듯이 기뻐하며 칭찬한다. 반면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온갖 모진 말로 비난하고 꾸짖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이런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자녀를 무조건 칭찬하고 떠받드는 부모도 옳지 않지만 매사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부모도 결코 옳지 못하다. 가능하면 격려하라. 당신의 격려와 위로의 말이, 자녀들이 자긍심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녀를 꾸짖거나 나무랄 때에도 자녀들의 자긍심이 파괴되지 않도록, ‘나는 정말 아무 짹에도 쓸모없는 아이구나’라고 느끼지 않도록 ‘말’에 유의하라.

나는 포커를 좋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관련해본다면 이 포커 게임 비유가 부모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자녀를 꾸짖고 비판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나쁜 패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포커 게임에서 자기 패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카드를 받기도 전에 지레 게임을 포기해버린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쁜 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인생의 도전과 시련 앞에서 금세 카드를 덮어버리고 게임을 포기한다. 손에 든 패가 나쁜데, 질 게 뻔한데, 아니 이미 졌는데 겨룰 마음이 생기겠는가? 반대로 자기 패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도전에 응하고 시련에 맞선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좋은 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까? 바로 “멋지구나!”, “아주 잘했어!”, “축하한다”, “다음엔 좀 더 노력하렴!” 이런 말을 듣는 아이들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쁜 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패를 주고 싶은가? 아니면 나쁜 패를 주고 싶은가? 우리가 자녀 칭찬에 인색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칭찬이 자녀를 자만하게 만들어 오히려 의욕을 앗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칭찬이 자녀들의 자아를 과도하게 부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칭찬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아예 칭찬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자녀 칭찬에 인색한 커다란 이유이다. 칭찬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양잡아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당신도 자녀를 칭찬하지 않는 다양한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제시한다 해도 그것이 ‘잃어버린 기회’를 보상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자녀를 칭찬하는(축복하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세울 것이며,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채비를 갖추어줄 것이며, 그들을 견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제3단계 : 축복받는 아이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것을 알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말로 축복할 때, 그들이 그것을 느낄 것이다. ‘축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무릎을 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왕 앞에 무릎을 끊는 것은 왕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특히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어떤 집에 불이 났다. 밖에 있던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화염을 뚫고 돌진한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구해 밖으로 나온다. 하지만 아버지는 몸 여기저기에 화상을 입는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이런 상처를 입었으면 무척이나 통증이 심했을 텐데 아프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아버지는

“아뇨, 아이를 안고 있어서 전혀 몰랐어요”라고 대답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말이다.

야곱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창 49:9)라는 말로 아들 유다를 축복했다. 야곱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일까? 요즘 우리는 열정적으로 뛰는 젊은 사업가를 볼 때 이런 말을 사용한다.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투지로 운동장을 누비는 신인 축구선수를 볼 때 그런 말을 사용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젊은 사자’라고 불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것을 예감한 것이다. 젊은 사자는 강인 한 힘과 특유의 공격성으로 실제로 놀라운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야곱은 다른 아들 잇사갈을 축복할 때,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끓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창 49:14)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한 것일까?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짐승이요, 일하는 짐승이요, 믿을 수 있는 짐승이다. 그래서 야곱은 신실한 아들의 ‘책임’이라는 짐을 잘 나를 것이라는 의미로 이런 축복을 한 것이다. 다른 형제들도 잇사갈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짐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잇사갈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야곱이 자기 아들을 나귀라고 칭했다는 데

난색을 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신중히 고려해보면 야곱이 잇사갈을 나귀라고 칭한 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잇사갈은 신실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주었고 결국 야곱의 축복과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또한 야곱은 아들 납달리를 축복할 때,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창 49:21)라고 말했다. 야곱은 이 아들 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젊은 암사슴은 들판을 뛰놀 든지 시내에서 물을 마시든지 그 기품과 우아한 자태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야곱은 그의 아들 납달리가 젊은 암사슴처럼 아름답다고 말했다. 아마 그는 “아들아, 옳은 일을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며 그들이 보기엔 그림처럼 아름답고 합당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이 잠재력을 일깨워주었을 때, 납달리는 그 예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마침내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직후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다. 그 거친 뱃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요 1:42)라고 말씀했다. 헬라어 ‘시몬’은 “듣는 자”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시므온’에서 유래한 말이다.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기에게 시므온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그 아들

은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 그는 통명스러웠고 거칠었고 자기만 의지했다. 이런 사람이 듣는 자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까칠한 뱃사람 시므온을 처음 만나자마자 “장차 게바라 하리라”(요 1:42)라고 말씀하신 것이다(‘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후 시몬은 ‘바위’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바위에 대해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의지할 만한 것”,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라는 의미의 대표 이미지가 바위이다. 엄밀히 말해, 예수께서 그에게 새로 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예를 들어 보이신 예견이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과 미성숙한 태도를 노출하며 몇 차례 연약함을 드러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계획하고 계셨을 때, 그는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언하다가 심한 꾸지람을 들었고(마 16:21-23 참조),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허세를 부리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마 26:34,35 참조). 베드로는 부동(不動)의 바위인 양 허풍을 멀고 했지만 종종 넘어졌고,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바위의 면모를 잊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순절에, 적대적인 유대 군중들에게 그리스도

의 교회의 시작을 선포할 만한 견고한 사람이 필요했을 때, 다른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하셨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바위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예수께서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4단계 : 축복받는 아이의 특별한 미래에 대해 묘사하라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의 과거나 혹 현재를 주목하지 말라. 대신 그들의 미래를 가리켜라.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적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主)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창 27:29)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야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며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그 가족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다. 정말 특별한 미래가 아닌가!

내 친구 존 맥스웰은 자기 손녀에게 ‘선샤인’(Sunshine, ‘햇빛’이라는 뜻)이란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이름은 손녀가 그의 인생에 특별한 기쁨을 선사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손녀

가 자라 자기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인생에 기쁨을 선사하려고 늘 노력하지 않겠는가?

어린이를 축복할 때 그 아이의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 물이 수원지 위로 흐를 수 없듯이 자녀들은 대체로 부모가 희망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이다. 당신의 자녀에게 “너는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거꾸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치를 부과하여 부담을 주지도 말라. 혹자는 자녀가 가진 최선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 부정적인 동기 부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생각에 찬동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녀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짐을 부과하여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지나치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 꽃이 말라 죽을 수 있고,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칭찬만 하거나 지나치게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인생의 열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자녀들(아이들)의 소질과 자질에 맞추어 축복하고 기대하라. 당신의 아들이 스포츠에 재능과 관심을 보이면 운동선수가 되라고 격려해도 좋을 것이고, 당신의 딸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면 간호사나 사역자가 되라고 격려해도 좋을 것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그리며 자녀를 축복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에게 육상선수가 되라고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부에 관심도 없고 소질도 없는 아이에게 의사나 과학자가 되라고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라! 축복은 자녀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지 자녀의 삶에서 가치를 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이루도록 도전하라!

제5단계 : 축복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념하고 헌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말한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이 힘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막무가내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상대가 당신이 말한 그 축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을 위해 혹은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도해야 한다.

나는 강의를 하러 장년 성경공부 반이 모이는 교실로 들어설 때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인사로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는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돋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한다.

적극적으로 도와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자녀나 어린이들)을 축복할 때, 상대가 당신이 말한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지혜의 축복을 할 때, 혹은 손자손녀들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축복할 때,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간을 내서 손자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거나 소중한 가치들을 전해주거나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해놓고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이루도록 선행(善行)과 노력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방식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라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축복의 말이나 기도를 해놓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말한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돋지 않는다면, 당신의 축복은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라

다시 야곱을 생각해보자.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창 27:28)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야곱이 자기 손자들을 축복했을 때, 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창 48:15,16)라고 말했다.

일찍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슬을 내려 풀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 풀을 양들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신의 손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했다.

자녀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라

당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자녀들을 축복한다. 때로 사역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자기기만적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 어떤 사역자가 이기적인 동기를 품지 않았다고 해도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기가 맡은 구역이나 부서의 교인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를 기뻐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축복했는지 주목하기 바란다.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창 49:28).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 특징과 장점과 미래에 적합한 각기 다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지혜를 가져야 하며,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축복하고자 하는 그 어린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원하는 그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적합한 축복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배우는 학생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적합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당신의 축복이 허공을 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으며, 그 사람이 축복을 이루도록 어떻게 돋겠다고 기도하지도 않는다.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려면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 대해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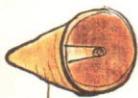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 사람의 본성, 문제 해결 방식, 꿈,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어 하는 일, 잠재력, 가능성, 장점과 단점, 열망하는 것, 영적 은사, 특질, 소질 등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을 완벽히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결합되어 그의 성품을 형성하고, 그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그 성품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느 정도 이런 요소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상대에 대해 알고 축복하면 당신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당신이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의 교사가 되어라

축복은 한 차례의 ‘기도’나 ‘말’로 끝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전념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잠언 기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라고 훈계했다.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어린이 야구단에서 멋진 활약을 했다고 아들을 칭찬할 때, 그 아빠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아들이 야구선수가 되기 원한다면, 그 아이를 경기장에 데려가야 하며, 함께 연습해야 하며, 경기에서 패했을 때에는 격려와 위로를, 승리했을 때에는 칭찬과 축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신

의 아들을 승자로 만들고 싶다면 승자의 태도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네 아이에게 소홀한 까닭이 무엇인가?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축복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

5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 우리도 어른으로서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1. 나는 내 아이들을 축복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2. 나는 내 아이들을 축복하여 그들의 삶에 물질적 영적 가치를 더할 수 있다.
3. 나는 의미 있는 신체 접촉을 통해 축복을 강화할 수 있다.
4. 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5. 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6. 나는 사람들(특히 어린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을 위한 특별한 미래를 그려보아야 한다.
7. 나는 내가 말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축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기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3-5절](#)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불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3-6절](#)

저가 네 문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시편 147편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 [잠언 22장 6절](#)



7

8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축복에는 반드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상대가 당신이 말한 그 축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





당신이 어떤 크리스천을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당신의 교회의 어떤 크리스천이 당신을 축복할 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축복할 때 서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당신에게도 해당된다.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갈 3:7)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축복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구절은 창세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일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살았다. 그는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다(창 12:1 참조). 그곳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매우 다른 곳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7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7가지 축복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고, 새로운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베풀셨다는 사실)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의 신자들이 서로

축복의 말을 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7가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을 때)부터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 축복

-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 네게 복을 주겠다.
-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도록 하겠다.
-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상 창세기 12장 2,3절 참조)

창세기 12장 2,3절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라는 축복의 말씀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절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

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갈 3:7-9)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몇 가지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창 12:2)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훠방하려고 갖은 애를 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작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가치를 더하시며,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크게 번창할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 저와 제 가족을, 하나님나라를 더욱 확장해나가는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하라.

2.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게 복을 주어”(창 12:2)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처음부터 온갖 박해를 당했지만 의연히 살아남았고,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전파를 훼방하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이기고 2천 년 역사를 통해 번창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이런 복만 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또한 메시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만사형통’과 동일시하지는 말

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巨富)로 만들어주겠다거나 혹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엉뚱한 기대를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삶에(심지어 신실한 신자들의 삶에) 박해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한 듯한 구절만 찾는 사람들은 유혹과 시련과 박해를 예견하는 말씀을 결코 보지 못 한다.

축복이란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수십 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대하며 인생을 살지 말라.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운으로 얻은 재물은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기는커녕 당신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들을 제한다. 그러기보다는 월급이나 수입이 3퍼센트 증가되었을 때 행복해 하는 법을 배워라. 그 작은 돈이 당신의 삶에 큰 가치를 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때나 적게 축복하실 때 한결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3. 우리는 영향력과 증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창 12:2)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주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형(典型)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선한 행실과 경건한 믿음의 행위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발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며,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증거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까지도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축복하셔서 제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나라에 가치를 더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4. 우리는 효율적인 사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유대인들)을 통해 기독교의 토대인 성경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선지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런 구약적 토대가 없었다면 신약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축복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섭리의 뜻을 이루어가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당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당신이 예배 안내위원이든 찬양대 대원이든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은밀히 봉사하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든 당신의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주께 구하라. 당신의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당신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주님, 제 사역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5.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창 12:3)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나라와 동일시되었고, 그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나라에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이 점에 대해서 바로 다음 항목에서 살펴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서로 축복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성립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크리스천을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또 당신의 교회의 어떤 크리스천이 당신을 축복할 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축복할 때 서로 축복을 받을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강건해질 것이다. 그러니 신자들을 축복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신자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고 존경할 때, 그것이 하나님

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주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물질적, 영적 가치를 더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6. 우리는 보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창 12:3)라고 약속하셨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펑박하는 자들을 징벌하시겠다는 무서운 약속이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구약의 예언서들과 시편은 이스라엘을 펑박한 민족들에 대한 징벌의 약속들로 가득하다.

그러면 이러한 보호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먼저 당신을 중오하는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자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 그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다.

그러나 간악한 사탄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 사람들을 교묘히 조종하여 하수인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당신을 미워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

여 기도하라”(눅 6:28)라고 가르치셨다.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해도, 감정을 절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로써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바울은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 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속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0,21)라고 훈계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그리함으로 네가 속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라고 묘사했다. 당신이 원수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주님, 저를 팁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7.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라고 약속하셨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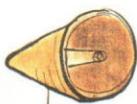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말씀하신 그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공짜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 때로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때로는 생생한 간증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말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극을 받고 의욕을 느낄 것이다. 또 한 당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실증하기 위해 두 사도 옆에 나란히 서 있었듯이(행 4:14 참조),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단지 간증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 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한다(고후 5:11 참조).

그러니 “주님, 저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 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하라

자신을 ‘낫추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을 것이니라”(눅 9:23)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 평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먹기 좋은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려면 바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까?”라고 계속 질문하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제 불평과 비난을 그치고 축복의 사명을 실천하는 자가 돼라.



축복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

6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계승자이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축복의 전파자가 돼라.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2.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3. 우리는 영향력과 증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4. 우리는 효율적인 사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5.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6. 우리는 보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7.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8.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내가 축복을 받는다.

축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2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리기서 3장 10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부록



매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문

나를 위한 보호의 축복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축복문

행복한 이웃가정을 위한 축복문

어휘사전



매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축복문

나는 악인의 꾀를 죽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좋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협통하리로다(시 1:1-3 참조).

나를 위한 보호의 축복문

내(하나님)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 참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즉(사 43:4 참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사 41:10 참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축복문

사랑하는 내 ○○!
네게 줄 수 있는 모든 축복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기를 축복한다.

네 인생을 이끌어줄 모든 축복보다
먼저 깨끗한 성품을 키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축복한다.

너를 부유하게 할 모든 축복보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마음과 근면 검약하는 마음과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해 하는 마음을 갖도록 축복한다.

너를 보호할 모든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축복한다.

세상적으로 만족스러운 결혼의 축복보다
먼저 경건한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삶을 일구기를 바라며,
네 짹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기를 축복한다.

행복한 이웃가정을 위한 축복문

사랑하는 ○○○와 ○○○야!
사도 요한의 사랑과 음의 인내와
솔로몬의 지혜를 갖기 바라며
지극한 행복을 나누기를 축복한다.
야곱과 라헬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오래 살기를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서로 섬기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번성하기를 축복한다.
에스더처럼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기를
드보라처럼 미래를 내다보기를
룻처럼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장하기를 축복한다.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발견하기를
지나치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기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축복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울처럼 헌신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번영하기를 축복한다.

어휘사전

- ① 구원의 축복 축복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기도하는 것(창 12:3 ; 막 10:14-16 ; 뉘 6:28 참조).
- 기도의 축복 어떤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민 6:23-26 참조).
- 깨달음의 축복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것.
- ② 동의의 축복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축복을 구하는 것(마 18:19 참조).
- ③ 말씀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계 1:3 참조).
- 말의 축복 축복하는 사람이 자신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 앞에서 말로 축복하는 것(민 6:27 , '믿음의 축복' 항목 참조).
- 믿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기도와 축복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마 17:20 ; 히 11:20 참조).

④ 번영의 축복	물질적, 영적으로 번영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것(창 28:3 ; 신 28:1-4 참조).
보호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로 축복받는 사람의 삶에 보호의 올타리를 둘러 그 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창 12:3 ; 시 84:11 ; 룸 12:20 ; 히 13:6 참조).
봉현(개업)의 축복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을 물질적, 영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막 10:16 참조).
Ⓐ 식탁의 축복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막 6:41 참조).
◎ 영적 전투의 축복	축복을 받는 사람이 온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훼방꾼들(사탄이나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창 14:19,20 ; 출 17:11,12 참조).
영적 축복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축복받는 사람의 삶에 영적인 가치를 더하는 것(엡 1:3 참조).
예견의 축복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일들을 예견하며 축복하는 것(눅 24:50,51 참조).
예기적 축복	어떤 사람의 잠재력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창 1:28 ; 막 11:22-24 ; 놀 6:38 ; 요 15:11 참조).
예배의 축복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것(시 103:1 ; 마 5:23,24 참조).

임재의 축복	어떤 사람의 삶에 임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신의 삶에 임재하셔서 늘 동행해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시 67:1 ; 막 2:5 참조).
④ 자기 것으로 만드는 축복	축복을 받는 사람이 단지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받은 축복에 따라 행동하는 것(창 39:5 참조).
자연적 축복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호소하거나 영적 의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축복받는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창 39:5 ; 롬 1:10 ; 마 5:45 참조).
전도의 축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거나 기도하는 것(눅 6:28 ; 행 4:20 참조).
중보의 축복	축복을 받는 사람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히 11:21 참조, 창 27:26-29 비교).
지지의 축복	축복을 받는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의 축복을 통해 실증하는 것(잠 8:21 ; 고후 1:3-5 참조).
⑤ 축도의 축복	목회자가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 그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구하는 것(민 6:23-26 ; 고후 13:13 참조).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사람(행 4:36,37 참조).
축복의 기대	축복을 받는 사람의 소질과 자질과 잠재력에 근거하여 축복하는 것. 어

면 사람을 축복할 때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창 49:28 ; 말 3:10 ; 롬 2:4 참조).

천교의 축복

어떤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엡 4:16 참조).

칭찬의 축복

칭찬하여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긍심을 더욱 키워주는 것(눅 6:31 ; 고후 1:3-5 참조).



축복합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교우

친구



동료

이웃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초판 1쇄 발행 2006년 9월 19일
초판 2쇄 발행 2006년 12월 11일

지은이 엠리 타운즈
옮긴이 배웅준

펴낸이 어진구
편집국장 김웅국
편집장 김아진
기획·홍보 이한민
책임편집 안수경 | 오은미, 박혜련, 이소현, 이현정, 최지설
책임디자인 이해영, 전보영 | 서은진, 백현아
해외저작권 최영오
마케팅 김상순, 강성민, 허병용, 박은숙
마케팅지원 최경식, 김선규
제작 조영석, 정도봉
경영지원 김혜경, 김경희

이슬비전도학교 전진배, 엄취선, 전우순
이슬비암송학교 박정숙, 최영배, 이지혜
이슬비장학회장 어운학

펴낸곳 규장

주소 137-893 서울시 서초구 잉재2동 205 규정선교센터
전화 578-0003 팩스 578-7332 이메일 kyujang@kyujang.com
등록일 1978.8.14. 제1-22

⑤ 한국어 판권은 규장에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책값 뒤표지에 있습니다.

ISBN 89-7046-398-4 03230

규 | 장 | 수 | 칙

1. 기도로 기획하고 기도로 제작한다.
2.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는 독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책만을 출판한다.
3. 한 활자 한 문장에 온 정성을 쏟는다.
4. 성실과 정확을 생명으로 삼고 일한다.
5.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신앙과 신행일치에의 안내자의 사명을 다한다.
6. 충고와 조언을 항상 감사로 경청한다.
7. 지상목표는 문서선교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승리하여 諸을 이루느니라(골 8:28)



Member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Publishers Association

규장은 문서를 통해 복음전파와 신앙교육에 주력하는 국제적 출판사들의
협의체인 복음주의출판협회(ECPA; Evangelical Christian Publishers
Association)의 출판정신에 동참하는 회원(Associate Member)입니다.